

녹아내린 종 다시 소리를 얻고... “이곳이 관음성지”

[사찰순례] 양양 낙산사와 대화재 극복한 불심

동욱 | 작가

낙산사 보타전 앞 연못에서 본 사찰 전경



2005년 4월 대화재로 불타는 낙산사 범종각과 동종
(출처 경향신문)



2005년 4월 화염에 휩싸인 낙산사 동종
(출처 연합뉴스)

2005년 4월 4일 밤 11시 53분
강원도 양양 화일리.

길가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30m, 시속 110km에 이르는 동풍을 타고 무섭게 번졌다. 16개 마을을 삼시간에 휩쓸더니 15시간 만인 5일 오후 3시 10분 낙산사를 덮쳤다.

그야말로 불바다였다. 사투가 이어졌지만 역부족이었다. 홍예문과 원통보전 같은 목조건물 21개 동이 스러졌고, 보물 479호 동종은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1469년 조선의 8대 국왕 예종이 아버지 세조를 위해 낙산사에 보시한 높이 158cm, 지름 98cm의 동종은 구리와 주석이 주성분이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섭씨 1,000도가 훨씬 넘는 용광로 같은 불길 속에 주저앉았다. 녹아버린 동종의 잔해는 낙산사 의상기념관에 보존돼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지만 역사의 끈질긴 생명력 덕분일까…….

20년 세월이 흐른 뒤 8월 한여름에 낙산사를 다시 찾은 순례자는 낙산 8경 가운데 첫 번째라는 ‘낙산사의 저녁 종소리, 낙가모종(洛迦暮鐘)’을 직접 듣는 행운을 누렸다.

낙산사 동종 복원은 불교미술과 조각예술, 금속공예, 보존과학 전문가들이 팀을 꾸려 진행했고, 불탄 지 열일곱 달 만에 예전의 모습과 소리를 복원해 중생 앞에 돌아왔다.

“적막했던 낙산사에 맑고 은은한 종소리가 살아났다. 복원된 종의 외형은 원래의 동종과 거의 일치한다.…음향 분석 결과 고유진동수는 177Hz, 맥놀이 주기는 0.7초로 원래의 종과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분비와 두께 설계 등에 현대적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생긴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명예교수 나형용 박사는 복원된 종소리를 ‘맑고 깨끗하며 화음이 잘 어우러지는 좋은 소리’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2006. 10. 17.>



낙산사에 보관중인 녹아내린 동종 잔해



낙산 8경 중 제1경 낙산사의 저녁 타종

저녁 하늘을 물들이는 종소리 속에 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보전으로 향했다.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관음보살의 진신(眞身)이 바닷가 동굴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7일 기도를 올리자 관음보살 진신이 나타나 말했다. ‘네가 있는 산의 꼭대기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날 것이다. 반드시 그곳에 불전을 지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동굴에서 나오자, 과연 대나무가 땅으로부터 솟아났다. 곧 금당(金堂)을 짓고 불상을 모셨다. 대나무가 없어지고 나서야 바로 관음의 진신이 머무른 곳을 알았다.” <일연 지음,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민음사, 2008, pp.365~366>

그곳이 바로 현재 원통보전이 있는 자리다.

대화재 당시 원통보전도 폐허로 변했지만 2007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했다.

원통보전에는 보물(옛 499호)인 건칠관음보살좌상이 있다.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종이나 삼베를 입힌 뒤 반복적으로 칠을 해서 만든 불상이다.

큰 불에 얼마나 놀랐을까?

스님들과 신도들의 필사의 방어 노력으로 다행히 화마를 피했다고 한다.

원통보전을 나오니 칠층석탑과 담장이 눈에 들어온다.



낙산사 원통보전 내 건칠관음보살좌상



2006년 복원된 낙산사 원통보전 정면



낙산사 대성문과 칠층석탑 원통보전이 이어진 모습



낙산사 원통보전에서 해수관음상 가는 '꿈이 이루어지는 길'

화재 때 그들을 피해를 입은 보물(옛 1362호) 칠층석탑도 반갑고 원통보전을 빙 두른 담장도 대견해 보인다.

3.7m높이로 220m에 걸친 담장은 조선 세조가 1467년 낙산사를 고쳐지을 때 처음 쌓았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이 있는 원통보전과 칠층석탑의 공간을 '성역 공간'으로 구분 짓고, 다른 건물과 분리하는 기능을 하지만 차가운 단절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통을 느끼게 한다.

흙과 기와 그리고 둥근 화강암을 사용했을 뿐인데 정교하고도 치밀한 수학적 계산으로 담장을 쌓은 건지, 단순하면서도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무늬는 순례자의 눈을 정화시키는 매력을 담고 있다.

“흙과 돌과 기와, 자연과 인공이 소담스럽게 만나 편안함과 즐거움을 연출해낸 이 별무늬 담장에 나는 정말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그와 같은 디자인 발상에 존경이 가고, 것처럼 단출하면서 멋 부린 태(態)가 없는 고고한 멋에 반한 것이다.”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창작과비평사, 1993, p.211>



낙산사 원통보전에서 바라본 석탑과 담장 모습



낙산사 원통보전 담장 세부 모습

원통보전을 나와 대성문, 원통문을 지나 “꿈이 이루어지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웅장한 모습의 해수관음상을 만나게 된다.

높이 16m, 둘레 3.3m 최대 너비 6m의 해수관음상은 1972년 만들기 시작해 1977년 11월 6일 점안했다고 한다. 화강암 700톤을 익산에서 운반해 와 300여 톤을 깎아내며 만든 대작이란다.

왼손에 감로수병을 받쳐 들고 홍련암 쪽 동해 바다를 바라보는 해수관음상.

이곳이 ‘관음 성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데 발길은 자연히 관음성지의 최초 사연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홍련암(紅蓮庵), 붉은 연꽃 위의 암자

신라 문무왕 17년인 671년,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이곳에 온 의상 대사는 파랑새 한 마리가 해안 석굴 속으로 자취를 감춘 것에 의문을 품었다. 석굴 앞에서 7일 밤낮을 기도드렸는데 7일 후 바다 위에서 붉은 연꽃이 솟아나더니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고 한다.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곳에 세운 암자가 홍련암이다. 낙산사의 모태가 된다고 한다.

홍련암을 찾은 순례자들은 혹시나 파랑새를 볼 수 있을까 해안 석굴인 ‘관음굴’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하고, 300미터



낙산사 해수관음상 정면



낙산사 해수관음상 얼굴과 손에 든 병



낙산사 홍련암 외경과 방문객들



낙산사 의상대 정면과 방문객들

떨어진 의상대에서 끝없는 동해 바다를 눈으로, 품으로 안기도 한다.

대화재라는 폐허를 딛고 2009년 복원을 마무리한 낙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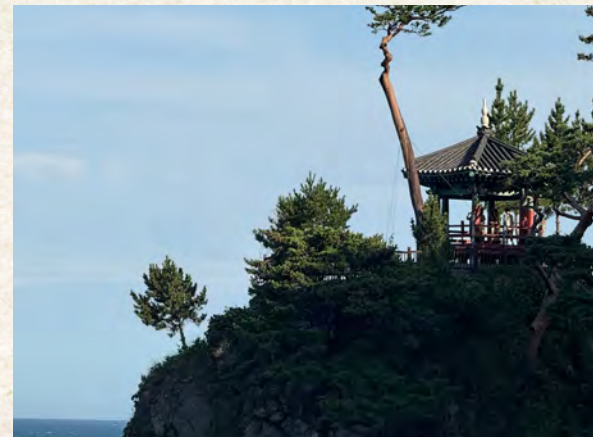
관세음보살의 가피 덕분일까?

문화재 발굴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기본 모형으로 한 게 전화위복이 됐다.

단원 김홍도는 1788년 정조 대왕의 명을 받고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직접 유람하며 60폭의 실경 산수화를 그렸다. 『금강사군첩(金剛四郡帖)』이라는 화첩인데 화첩에 담긴 「낙산사도(洛山寺圖)」가 낙산사 복원의 조감도가 됐다.

덕분에 낙산사가 가장 크고 장엄했던 조선 세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불타기 이전보다 더 원형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새로 회향한 낙산사는 홍련암의 주련처럼 언제나 활기찬 도량일 것이다.

백의관음은 말없이 설법하시고 (白衣觀音無說說백의관음무설설)
남순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는다 (南巡童子不聞聞남순동자불문문)
화병 위의 푸른 버들은 늘 여름이요 (瓶上綠楊三際夏병상녹양삼제하)
바위 앞 대나무는 어디나 봄이라네 (巖前翠竹十方春암전취죽시방춘)



홍련암에서 올라다 본 의상대



다시 울린 종소리, 낙산사로 이어지는길

한국도로협회 편집부

서울을 벗어나 동쪽으로 향하는 길은 조금씩 마음의 속도를 늦춘다.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따라 터널과 산줄기를 지나면, 어느 순간 차창 밖 공기가 바다 쪽으로 열린다. 양양 IC를 나와 낙산사로 향하는 짧은 길은 도심의 소음을 내려놓고 동해의 수평선을 받아들이는 준비의 시간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낙산사는 길의 끝에 조용히 앉아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시간이 쌓여 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홍련암, 동해를 바라보는 해수관음상, 관음 신앙의 중심 공간인 원통보전은 이 절이 왜 오랫동안 '관음성지'로 불렸는지를 말없이 보여준다.

낙산사는 폐허를 건넌 사찰이기도 하다. 2005년 양양 산불은 원통보전과 홍예문 등 여러 전각을 삼켰고, 조선 예종 때 내려진 동종도 녹아내렸다. 그러나 절은 무너지지 않았다. 불탄 자리에 다시 기둥을 세우고, 종은 다시 소리를 얻었다. 그 복원의 시간은 단순한 건축의 회복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 다시 일어서는 장소의 기억이었다.

경내를 걷다 보면 바람은 세지만 풍경은 고요하다. 원통보전 앞 담장은 흙과 돌, 기와가 낮게 이어지며 공간을 가른다기보다 마음을 가라앉힌다.

해수관음상 앞에서는 바다가 넓게 펼쳐지고, 홍련암으로 향하는 길에서는 파도 소리가 걸음을 붙든다. 길 위에서 쌓였던 피로가 그 소리에 조금씩 풀린다.

낙산사로 가는 길은 단지 사찰을 찾아가는 교통로가 아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바닷가 길이 이어지는 동안 사람은 일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난다. 도로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시설이지만, 때로는 마음을 쉬게 하는 긴 호흡이 된다. 낙산사에 이르는 길이 바로 그렇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해 양양IC로 진출한 뒤 설악로와 낙산사로를 따라 이동하면 낙산사에 닿는다. 동해안권에서는 동해고속도로 또는 동해대로·국도 7호선 축을 따라 낙산사거리 방향으로 접근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양양종합여객터미널에서 낙산 방면 시내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서울양양고속도로(60) ▶ 양양IC ▶ 국도 7호선(동해대로) 속초 방면 ▶ 낙산사로 ▶ 낙산사
서울에서 자차로 약 180km · 2시간 30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